

大項里貝塚

崔 夢 龍

이 貝塚은 一九六八年 三月 表面調査하여 櫛文土器文化系統의 遺蹟이라고 簡略히 紹介해둔 바 있다. ①

그러나 遺蹟이 지니고 있는 價値로 그해 七月 夏期放學을 利用해 第二次調査를 하였는데 그때 二×五m의 試掘坑을 넣어본 結果 貝殼層의 中心部는 이미 潮水로 因해서 大部分 流失되어 버렸고 斷崖部에 露出되어 있는 貝殼層이 殘存部의 全部임(圖版 2·3)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새로 採集한 無文土器片 底部、繩(蓆)文土器片 一點과 첫번째 調査할 때 주은 櫛文土器片 一點을 合쳐 簡略히 紹介하고자 한다.

一

二

이 貝塚은 全羅北道 邊山半島의 北半部에 位置하고 있는 扶安郡 山內面 大項里 蛤九味(조개미)에 所在하고 있으며 標高 二四

여기 貝殼層에서 採集된 人工遺物은 土器片 몇개 뿐인데 그 狀態는 다음과 같다.  
A、緣文土器片 二點  
① 口緣部片(圖版 4의 左側)

三

地表  
表上層 五〇—五二cm  
泥土貝殼層 五三—六五cm  
黃土腐蝕及 礫石層 十九—三二cm  
以下 岩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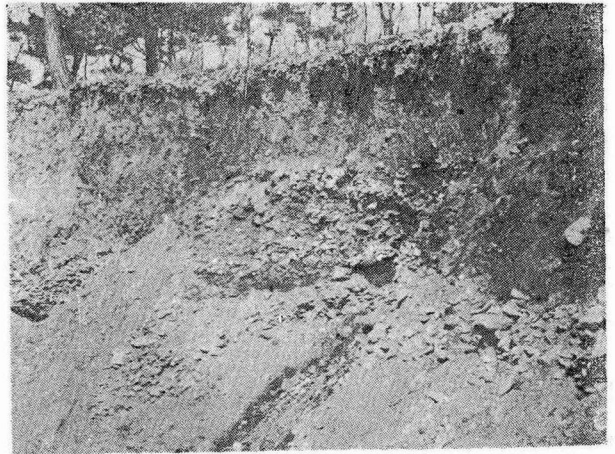


圖 2. 大項里 貝塚 貝殼 露出狀況

四m인 石內山을 背景으로 하고 西海에 向한 幅 약 一五m 程度의 조그만 灣入部에 있다.  
位置는 朴長春氏 所有 二〇〇坪 가량되는 보리밭이며 그밭 東側이 約 一〇餘m쯤 潮水에 依해 流失되어 貝層의 斷面이 露出되어 있다(圖版 1)  
現在 이 貝殼의 範圍는 南北長 約 一四m 東西幅 約 一〇m쯤 된다.  
斷崖部에 露出되어 있는 이 遺蹟의 斷面을 보면 地表面에서 最下層 岩盤上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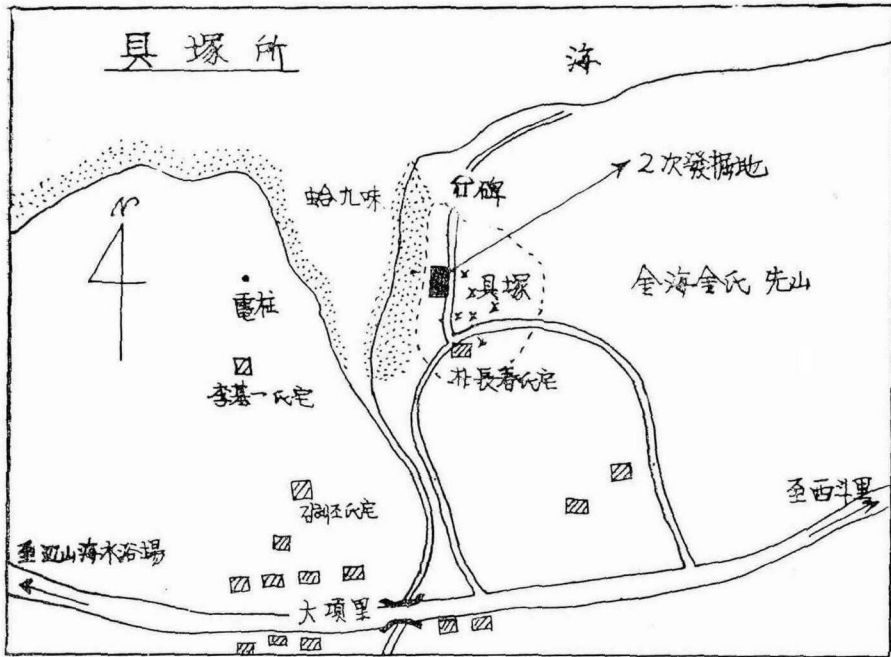


圖 3. 貝塚所在 略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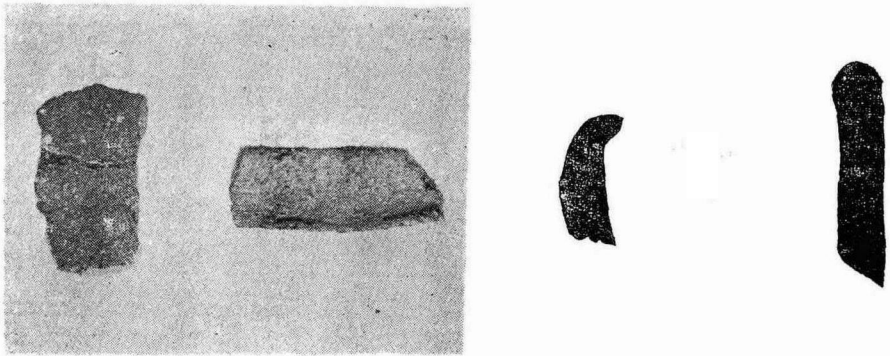


圖 4. 櫛文土器片 및 그 斷面

이 破片은 지난 一次調査時 貝塚斷崖部에서 採集한 것으로 胎土質로 보아 砂粒이 若干 섞인 櫛文土器片이며 雲母片으로 因해 반짝거리며 器表面이 매우 매끄럽다.

色調는 内外壁 모두 明褐色을 보여 준다. 器壁의 厚 〇·六cm. 또 器表面에 나타난 特徵을 보면 無文이며 口緣部가 外反되어 있으며 口緣部가 가까이 接着面을 튼튼히 하기 위해 손으로 꼭꼭 누른 자국이 남아 있어 成形技法의 一面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비록 이 小破片이 櫛文土器片이긴 하지만 胎土에 砂粒이 섞이는 退化期 櫛文土器系統에 屬하며, 이와 같은 例가 全羅南道 務安郡 牛耳島 項里 貝塚② 全南 莞島郡 古今島 調洞 貝塚③ 大黑山 高貝塚④ 等地에서 發見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陸地에서 떨어진 島嶼地方에서 發見된 것이며 陸地 特히 全羅南道 海岸一帶에서는, 九一六年 報告된 群山地方의 一例 ⑤를 除外하고는 筆者의 管見으로는 初出이 아닌 것 같으며, 群山地方附近에서 發見된 貝塚出土 櫛文土器 一例도 지금은 貝塚自體가 湮滅되어 버려 그 確實한 地點조차 알 수 없는 形便이 되었으며, 오직 文獻上의 記錄뿐인 것이다. 그래서 여기 出

土櫛文土器片은 비록 退化期 櫛文土器에 속하지만 앞으로 西海岸 櫛文土器研究에 重要な 資料가 될 것이다.

② 胴部片(圖版 4의 右側)

前者 口緣部片과 胎土質이나 器壁의 厚가 〇·六cm로 特 같지만 內壁의 色 調가 黃褐色인 反面 外壁이 黑褐色을 보여 주는 것이 다른 點이라 하겠다.

B、平底無文土器片(圖版 5)

外壁은 無文으로서 밝은 紅褐色調을 띄우고 있으며 內壁은 不完全燃 燒의 탓인지 黑色을 보여 주고 있다. 胎土質은 굵은 砂粒이 섞인 典型的인 無文土器胎土質의 그것 이라 하겠다.

이 底部片의 外形에 나

타난 特徵을 說明하면 金 元龍 教授가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平底로서 器身 部와 器底部를 接着 시킬 때의 過程上 接着部 즉 底部 直上部가 一旦 維約되는 普通無文土器의 典型的인 形式을 보이고 있다. ⑥

圖5 實測圖에서 보는 바와 같이 底部片으로 器形을 復元해 본 結果, 底徑 七八cm의 比較的 큰 鉢形 이라고 推測되며 口徑과 器高는 알 수 없다. 器壁의 厚 一·一cm

C、繩蓆文土器片(圖版 6)

內壁은 燒成時 高度의 熱

에 依한 탓인지 灰黑色이며 外壁은 밝은 黃褐色을 보여 주고 있고, 堅度 도 매우 높다.

그런데 器表面에 繩蓆文이 있어 注目

을 끄는데 이것은 金海、東萊 等의 遺蹟에서 多量으로 發見되는 소위 金海式 土器⑦에 該當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다. 器壁의 厚 〇·五cm

四

以上 四點의 土器片은 櫛文·無文·金海等 原則의 으로서 屬하는 文化段階가 다른 것이지만 同一文化層에서 섞여 나고 있음이 注目된다. 그러나 이것 들은 前記한 바와 같이 層位的인 發掘 調査에 依해 얻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貝塚斷崖部에서 採集된 것이기 때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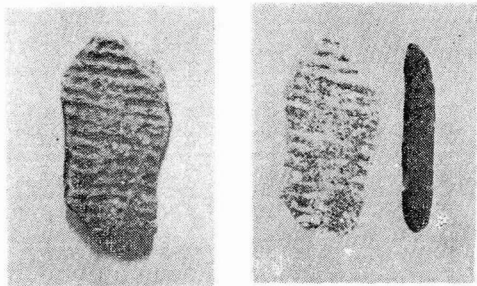


圖 6. 繩文土器片 撮影 및 招本, 器壁斷面圖

이 以上の 推論을 展開할 수 없다. 그러나 櫛文土器片 二點은 櫛文土器末期 이미 無文土器時代가 到來한 後 그들 文化의 影響에 依해 共存하면서 製作해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왜냐 하면 黑山島의 境遇가 그러하고 또 江原道 春城郡 圓坪二里 敷石住居址에서 出土하는 土器의 樣相을 보면 無文土器文化의 影響下에 일어나는 地域의 인 「바라이어티」로 보아 더욱 그러하다. ⑧

또 金海式 繩文土器를 보면 無文土器 時代에 屬하는 一南方式 支石墓 下에서 磨製石鏃·劍破片과 함께 金海土器片 三點이 出土하였는데 原報告者는 金海土器片이 後代에 섞여들어 간 것이 아니고, 이것들이 副葬品 이 아니더라도 時間的으로 그 支石墓가 建設되기 以前에 製作된 것이 틀림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 南韓地方의 支石墓가 時代的으로 所謂 三國古墳期와 連結된다고 言及하고 있다. ⑨

또 最近 釜山市 多大浦貝塚에 對한 發掘調査報告가 나왔는데 여기에

圖 5. 無文土器片 底部實測圖

依하면 無文土器片이 櫛文土器片과 混在하고 있고 또 櫛文土器文化가 끈질기게 繼續되어 金海文化와 한동안은 共存하는 形態를 이루고 있었었다는 것을 밝혀내주고 있다. ⑩

그렇게 놓고 보면 여기에서 出土되는 櫛文·無文·金海土器片이 同一 貝殼層에서 함께 出土되는 것이 理解된다.

即 相互 異質의 인 三者의 土器片이 時間的인 差異 없이 同一文化圈을 이루어 共存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危險한 結論이 되겠지만, 오히려 地域的인 文化性格에 따라 櫛文土器文化傳統이 끈질기게 繼續되어 내려온 後 一時的인이나마 金海土器와 共存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解釋될 수 있겠다. 따라서 時期는 여기서는 下限을 表示하고 있는 金海土器(初期鐵器) 時代의 어느 한 時期에 地域的인 差異로 因해 三者의 文化가 結合하여 一時的으로 共存하여 있었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각은 어디까지나 推論에 不過한 것이며 꼭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여기 貝塚이 단일 貝殼層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人工層位를 갈라 時間的인 先後關係를 엄밀히 區分하여 調査되어야만 明確한 解答을 얻을 수 있겠다.

또 여기 邊山半島一帶에는 支石墓 造成人들이 全盛을 누린 例⑪와 함께 지난 七月에 發見한 邊山半島 格浦, 三件貝塚과 竹幕洞貝塚의 學術的인 調査로 이 大項里 貝塚의 性格이 좀 더 詳細하게 밝혀지리라 믿는다.

註

- ① 拙稿：「全北 海岸一帶의 先史遺蹟」(二) 考古美術 八卷 五號(一九六七、五) pp. 八一—一
- ② 金元龍·任孝宰：「南海島嶼考古學」一九六八、P. 五九 및 圖版四九、五〇
- ③ 前掲書：P. 一三三
- ④ 前掲書：P. 三四
- ⑤ 島居龍藏：「平安北道·黃海道古蹟調査報告」大正六年度 古蹟調査報告 所收(一九一六) P. 七九二

⑥ 金元龍：「天安市 鳳龍洞 山上 無文土器遺蹟」震檀學報 二九·三〇合併號 一九六七 P. 三三三

⑦ 水野清二等：「對馬」東方考古學叢書刊二種 第六冊 一九五三 P. 二二九

⑧ 拙稿：「昭陽江 D A M 工事로 因한 水沒地區 遺蹟調査報告」文化財 六號 一九七二、三、出刊豫定

⑨ 金元龍：「金海土器片을 내는 潭陽文學里(全南 潭陽郡 大德面)의 一支石墓」美術資料 第三號 一九六一、六、pp. 一〇—一二

⑩ 金龍基：「多大浦貝塚 發掘調査報告」金大史學 第二號 一九七一、六 pp. 一六—二九

⑪ 李弘植：「湖南地方의 고인돌」讀史餘滴 所收(一九六〇)과 今西龍「全羅北道 西部地方 旅行雜記」(百濟史研究附錄 一九三五 P. 五二二)。「朝鮮寶物古蹟資料」(朝鮮總督府 一九四三) 扶安郡條 參照

考古美術뉴스

◎ 文化財委 第一分委 第五次會議

一九七二年 六月 二十三日 午後二時、文化財管理局 會議室에서 韓圭榮、김원룡、정영호 씨등 제전문위원이 참석한 中에 개최되어 다음 사항이 심의되었다.

一、文化財 指定

가、유근영정(七一歲像)……충북 괴산군 괴산면 서부리에 있는 이 영정은 十世紀의 완체종 초상화로써 보물로 지정할 것을 심의의 가결하였다.

二、文化財 보수공사 설계검토

가、송의전지(史蹟 第二三號)……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 있는 이 송의전지에 축대, 기초공사 및 안내판, 홍살문을 신축하되, 전지를 발굴, 조사한다 음 「송의전지」라는 비석을 세운다는 전제로 설계를 검토하였다.

나、金井山城(史蹟 第二五號)……부산시 동래구에 있는 이 山城에 남문, 망루를 복원하고 성곽 八〇m를 보수한다는 설계를 검토하고 보완 사항을 첨부하여 가결하였다.

다、扶餘扶蘇山城(史蹟 第五號)……사자루의 일부 보수 및 단청、土城 二百